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제16호
2007. 08. 16

발행인 임기수 설문대어린이도서관 749-0070 <http://www.smd.or.kr>

새롭게 문을 연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1998년 가을, IMF한파가 우리 모두를 움츠리게 만들 때 지하층 한곳에서는 희망의 불꽃이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를 만든 설문대할망의 넉넉함으로 우리아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스한 공간, 바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태어난 것입니다.

2000년, 지하공간이라는 조건과 구석진 동네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나눔과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인 연동 노인회관 2층으로 옮겨 아늑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설문대할망이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명주 한필씩을 모으듯 도서관을 아끼는 모든 분들의 정성과 사랑 속에서 이제 설문대는 제주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버팀목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2007년,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두 달간 리모델링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집 같은 포근한 도서관, 지나가다 누구든지 들러서 놀 수 있는 도서관, 동네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 속에서 그 가치를 더 빛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04년 새 랑장한 설문대모습

③ 2005 겨울독서교실 그림자극.
(책 친구들과 물놀이 해요)

⑤ 2006 책 나들이
(돌하르방 빙세기웃라)

⑦ 2007 독서교실
(뚝딱, 인형극 놀이러)

② 2004년 책나들이
(책속에 풍령, 오감에 풍령)

④ 2005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우수사례 후속 프로그램
“오름 책이 피었습니다.”

⑥ 2006 겨울독서교실
(뚝딱, 영상그림책)

⑧ 2007 열마의 나들이 프로젝트
(유수암 친구들과 함께)

뚜벅뚜벅 10년 발걸음



초대합니다

책읽는사회운동본부와 삼성,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설문대가 선정되어 두 달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간, 모두가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이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개관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8월 25일 토요일 11시~늦은 5시

장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및 1층 강당

여는 마당

1. 영상으로 보는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 “왓수강?” 관장님 인사말
3. 개관 축하 긴 가래떡 자르기
4. “잔치국수와 떡 드십시오”

노는 마당

1. 평화책 100선 전시 (1층 강당)
2. 그림책 작가 권윤덕 선생님과 함께 / 13:00 - 14:00
3. 조개껍데기에 담은 희망의 메시지
4. 평화의 대나무잎배 만들기 (신나는 배 띄우기)
5. 손이 시려워 뽀! 발이 시려워 뽀!
6. 좋은 우리영화상영 / 15:00 - 17:00

“애들아 너희들 소원이 뭐지? 췌! 소원세가지만 아무도 몰래 생각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소원이 달아나 버릴지 모르니까 말로 꺼내지는 마세요”

어유 귀여운 강아지들 같으니라고... 골똥이 생각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을 볼 수 있었다.

“소시지가 그만 아저씨 코에 찰싹 붙어 버렸어요 어떻게하면 좋지?”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져버렸다. “마구 잡아당겨요” “소시지를 조금씩 떼서 먹어요” 저마다의 생각이 막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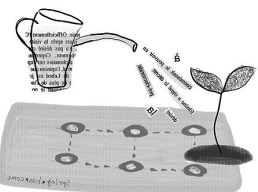


아저씨의 목소리로 듣는 ‘쌀밥 보리밥’ 이야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너희들 쌀밥 보리밥 놀이 아니?” “네!!” 사실 관장님은 해 보지 않으셨다. 관장님이 가장 잘 했던 것은 개구장이 사고치는 것일 테니까 앉아서 하는 이 놀이를 안 해 보았다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다 읽고 나서 “짹” 하고 관장님이 내미신 손은 커다란 빨간 손이었다. 아이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한꺼번에 다 쌀밥 보리밥 하는 거다” “잡았다”하는 관장님의 손에는 어도유치원친구의 머리통이다. 또 한 번 웃음바다다. 어떤 아이는 커다란 손이 무서운지 차마 주먹을 집어넣지 못했다. 아이들이 이처럼 즐거워하는걸 보니 어제 선생님들이 애써 만든 보람이 있었다.

시간은 재미있는 사람을 시기하나보다. 어느새 끝낼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돌아오는 발걸음은 흐뭇했다.

(어도유치원 책 읽어주기)



5월 17일,
가장 시시한 사람은?
바로 너!

〈세 가지 질문--가장 시시한 때는? 가장 시시한 사람은? 가장 시시한 일은?〉

재용아, 선생님은 오늘 관장님한테 혼났어. 왜냐하면 유수암에 갔다 와서 빨리 빨리 좋은 글을 안 올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에야 쓰고 있는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네 얼굴이 가득 차 있어. 〈하얀 눈썹 호랑이〉를 읽을 때 눈썹을 휘날리는 호랑이가 사람들 속 마음을 모두 읽는다는 대목에서 너의 얼굴이 무척 셀룩거렸거든..너 형아 몰래 맛있는 거 혼자만 먹은 적 있지? 아니면 남의 발에 몰래 오줌을 갈렸거나? 그지? 해해 농담이야 농담..

재용아, 사람 마음은 사람 눈으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고와야 늘 맑은 눈빛을 지닐 수 있대.. 우리 재용이랑 유수암 모든 어린이들이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어. 언제나 맑은 눈빛 말이야.. 마치 하얀 눈썹을 하나씩 매달고 있는 저 늙은 호랑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책을 그림책으로 만든 〈세 가지 질문〉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거꾸로 물었지? 가장 시시한 때는? 가장 시시한 사람은? 가장 시시한 일은? 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너희들 반응,, 사실은 가장 관심있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가장 행복한 때를 말하는 것 같았어. 이 대목에서 특히 우리들은 “친구”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만약 내 친구 혜원이가 없다면, 만약 내 친구 금석이 없다면, 만약 내 친구 태욱이가 없다면, 만약 내 친구 태우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시시할까? 난 다 눈치챘어. 실은 너희들이 가장 친구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아, 톨스토이가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지금 함께 하는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을 위한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하며 사는 시간을 꾸며보자.

늘 나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너희들이 참 좋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유수암 친구들)

9명의 여우들이 모였다.

4시간동안 이야기를 들어 준 교장선생님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 줘야지!” 하며 다짐하면서도 잘 안 된다며 반성을 하는 여우들의 모습이다.

토토의 학교가 부럽다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들다. 집에서 토토엄마처럼 먼저 실천하자. 기다려주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잘 대응하고..”

“사실 토토의 엄마는 대단하다. 하란 잔소리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기다려 주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아이를 다그치지 말자”

“우선 우리(부모)자신을 돌아보자.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아이의 부족한 면을 봤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림이 참 예쁘다. ‘이와사끼 치히로’ 작품이 돋보이는 책이다”

“‘창가의 토토’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후기를 읽으니 더 느끼는게 많다”

‘책 먹는 여우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다짐으로 끝을 맺었다.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는 말과 행동

*아이의 이야기 들어 주는게 중요하다

*아이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자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기다림을 배우자

*자연을 느끼게 하자

(책 읽는 여우들 모임)



도·서·관·소·식

문화학교 프로그램 시간이 변경됩니다.

“책이 있는 요술상자”

학교 밖 글쓰기

화요일 : 4~6학년 (4시30분~6시)

수요일 : 1학년(3시~4시20분) 2~3학년(4시30분~6시)

유아그림책교실

금요일 : 3시~4시10분, 4시30분~5시40분 (6~7세)

역사책읽는아이들모임 목요일 6시~

과학책읽는아이들모임 수요일 6시~

주말책놀이터 “모여라 악당개미들”

둘째 토요일 오전10시30분~11시30분

■도서관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오후6시(여름철7시까지)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행복한 책 나들이

어도 병설 유치원 책 읽어주기 매주 금요일 오전

유수암문고 책 읽어주기 매주 금요일 6시30분부터

옆마을 나들이 프로젝트

넷째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 3시30분

학부모 독서모임 책읽는 여우

매주 화요일 10시30분~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 잔치 10월 첫째 주 예정

여름 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겨울 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후원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경남 강경림 강기령 강동근 강동훈 강래화 강만숙 강문정 강민정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선희 강수민 강수선 강순희 강승호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은희 강인숙 강재희 강정림 강지니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만성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유경 고유석 고은희 고익희 고정숙
고정희 고하라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기옥 김랑희 김명선 김미순
김미조 김부자 김성미 김성호 김성환 김소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영미 김영민 김영완 김오순 김옥희 김용식 김용택 김유철 김윤자
김인영 김재윤 김정금 김정운 김정은 김중현 김진옥 김진희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효숙 김 훈 김희정 문경애 문계양 문금선 문순실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민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미희 박정석
박태진 박희숙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성영희 손혜경 송미경
송시우 송지영 송준미 송치우 신우용 안연하 안영애 안은희 안진영
양가애 양연심 양용선 양운구 양은숙 양재선 양정옥 양정은 양중수
양창식 양호선 양희연 오성운 오승룡 오승훈 오정심 오정희 오종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우상임 우지숙 유종상 윤경숙 윤경희 윤희순
이경의 이경희 이광복 이덕송 이동삼 이상진 이상현 이상희 이서진
이숙희 이승현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숙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재철 이정희 이정희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건 이창식
이현동 이혜연 이호석 이호열 이희숙 임권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정미애 정소영 정현진 정갑열 정동진 정명선 정수연 정영우
정윤택 정윤택 조용숙 조윤주 좌순자 좌춘자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창욱 채정심 채희영 최미경 최미자 최형규 한예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은주 홍효정 (이상 226명)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입니다.